

# 시견오 기녀 소재 시의 특징 고찰

신민야\*

## <目 次>

1. 서론
2. 시견오 생애
3. 시견오 기녀 소재 시의 특징
  - 1) 당대 과거급제 후 풍류 표현
  - 2) 기녀와의 사랑을 仙道에 기탁
  - 3) 기녀의 섹정적 아름다움 강조
4. 결론

## 1. 서론

施肩吾(대략 780~861년)는 중당 시기 시인이다. 중당 시기에 문인들은 유학을 통해 왕권이 성당 때처럼 공고히 다져지고 자신들도 치국평천하의 이념을 실현하기를 바랐으나, 바램과는 달리 세상은 그리 태평하지 못했다. 이에 중당 문인들은 文以載道를 강조함과 동시에 獨善其身으로 나아가는 경향 역시 있게 되었다. 중당의 문인들은 겉으로는 인의와 도덕을 강조하였지만 그 이면으로 향락에 젖고, 가무와 여색에 젖기도 하고, 전원에서 자적하는 생활에 젖기도 하였다. 대체로 이 시기 문인들에게는 이러한 서로 다른 두가지 면이 섞여 나타나는 경향이 흔히 있었다.<sup>1)</sup>

중당의 이러한 시대 분위기는 시가에도 반영되어 명대의 陸時雍은 “중당시는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초빙교수

1) 이택후 저, 윤수영 역, 『미의 역경』, 서울, 동문선, 1997, 377-395쪽 참조.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 詩境은 수렴되어 충실해지고 시어는 수렴되어 정밀해졌다. 기세가 크면 반드시 수축되고 사물이 화려하면 반대로 소박해진다. 성당시가 확장됨이 이미 극에 달하여 더 나아갈 바가 없었던 것이 중당시가 완전히 반대로 수렴으로 나아간 이유다.”<sup>2)</sup>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중당시가의 內向性을 말한 것으로 중당시는 기세가 크고 개방적인 성당시로부터 내향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즉 우주와 역사 등의 큰 주제에서 관심을 돌려 개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광활한 세계로부터 관심을 돌려 내면의 소우주와 꽃·술·차·女色 등의 생활의 작은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중당에서도 특히 원화시기 시가에 대해서는 성당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길을 모색했다는 의미에서 역대 비평가들이 흔히 “變”<sup>3)</sup>과 “大變”<sup>4)</sup>으로 그 특징을 논했다. 唐末의 張爲는 『詩人主客圖』에서 시견오를 백거이 시파로 분류한 바 있으며,<sup>5)</sup> 이후 시견오는 중당시기의 元白詩派에 속하는 시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시견오는 또 도교 도사라는 독특한 신분을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그의 시는 현재 『全唐詩』 권494에 200여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全唐詩』의 편자는 시견오의 시를 도사 부류의 시 속에 분류하지 않고 일반 시인들과 함께 분류하고 있다. 이는 도교 도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시 외에 다른 주제의 시들도 많은 점에 주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견오의 시 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幼女詞」<sup>6)</sup>가 있으

2) 中唐詩近收斂，境斂而實，語斂而精。勢大將收，物華反素，盛唐鋪張已極，無復可加，中唐所以一反之斂也。(陸時雍，『詩鏡總論』，北京，中華書局，1997，1417쪽)

3) 元和諸公所長，正在於變。(許學夷，『詩源辯體』，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8，250쪽)  
蓋因元和長慶間與開元天寶時，詩之運會，又當一變，故知之者少。(清 薛雪，『一瓢詩話』，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8，110쪽)

4) 古詩若元和諸子，則萬怪千奇，其派各出，而不與李杜高岑諸子同源，故爲大變。(許學夷， 앞의 책， 306쪽)

大歷以後，五七言律流於委靡，元和諸公羣起而力振之，賈島王建樂天創作新奇，遂爲大變。(許學夷， 앞의 책， 245쪽)

詩至元白，實又一大變。(『載酒園詩話又編』中唐 元稹條，『清詩話續編』360쪽)

5) 廣大教化主：白居易，……及門十人：費冠卿·皇甫松·殷堯藩·施肩吾·周光範·祝天膺·徐凝·朱可名·陳標·童翰卿。(張爲，『詩人主客圖』)

6) “어린 딸 겨우 여섯 살이라, 숨겨 있음과 서투름을 알지 못하네. 밤이 가까워지니 본체 앞에서, 어른에게 배운 대로 초승달에 절하네.(幼女纔六歲，未知巧與拙，向夜在堂前，學人拜新月.)”(『전당시』， 제15책， 5588쪽) 시견오의 이 시는 어린 딸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며, 역대 비평가들은 그의 시 중에서도 특히 艷詩와 閨怨詩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명말의 許學夷는 『詩源辯體』에서 평가하기를 『萬首唐人絕句』에 실린 150여 수의 시견오 칠언절구 중 艷詩의 경우 원진의 艷詩를 능가한다고 하였다.<sup>7)</sup> 역대 비평가들은 또 시견오 시의 특징을 주로 ‘섬세하고 정교함(輕巧)’과 ‘기려(奇麗)’로 평가하였다.<sup>8)</sup> 청대 丁儀는 『詩學淵源』에서 “사람들은 단지 ‘삼십육체가 온정균·이상은에게서 시작된 것만 알고 이하가 그 존송받는 비는 모르며 원화 때 시견오가 사실 이미 이보다 앞선 것을 모른다. 시견오는 …… 시를 지음이 奇麗하여 근체시로 당시에 이름이 높았다”<sup>9)</sup>라며 ‘奇麗’한 중만당 문학의 한 특징에 있어서 시견오가 李賀(대략 791~817년)와 溫庭筠(대략 812~866년)·李商隱(대략 813~858년)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음에 주목하였다.

7) “施肩吾(字希聖) 七言絕見萬首唐人絕句, 凡一百五十餘首. 中有艷詞三十餘篇, 語多新巧, 能道人意中事, 較微之艷詩遠爲勝之. 今采錄一十六首, 以備一家.”(許學夷, 앞의 책, 1998, 282쪽)

8) “시견오 선배는 시 짓기가 奇麗하기로 그 당시 으뜸이었다. 100운 『산거』시를 썼는데 재주가 풍부했다. 예를 들어 ‘연꽃 뒤집혀 보랏빛 덮개되어 물결 흔들고, 부들 빛나 푸른 배처럼 물가에 닿아 있네’ 또 ‘안개가 벽려에 내리니 용 수염처럼 부드럽고, 비가 파초에 떨어지니 봉황의 날개처럼 늘어지네’ …… 또 『贈友人下第閑居』에서 말했다: ‘꽃술 피어 붉으니 술 따르며 보고, 白芷 심지 나와 푸를 때 안개 속에 김멘다네’ 이와 같은 종류는 모두 섬세함과 정교함의 극치이다.”(“施肩吾先輩爲詩奇麗, 冠於當時. 著百韻『山居』詩, 才情富瞻. 如‘荷翻紫蓋搖波面, 蒲莖青刀插水湄. 又‘煙薛荔龍鬚軟, 雨壓芭蕉鳳翅垂.’ …… 又『贈友人下第閑居』云: ‘花眼綻紅斟酒看, 藥心抽綠帶煙鋤. 如是之類, 皆輕巧之極.”)(五代 何光遠, 『鑿謫錄』 卷八 “走山魘”)

“시를 씀이 奇麗하며, 『백운산거시』를 썼는데 재주가 풍부하다.”(爲詩奇麗, 著『百韻山居詩』, 才情富瞻)(南宋 計有功, 『唐詩紀事』)

“(시견오는) 시가 奇麗하다”(施肩吾)爲詩奇麗『全唐詩·施肩吾小傳』)

“시견오는 서산에서 도를 배워 스스로 여러 도인들 중의 한 명으로 의탁하였다.: 그러나 시구가 오히려 艷麗하고 운치가 부족하여 성숙하지 않으니 어찌 신선이라 하겠는가?”(施肩吾學道西山, 自托群真之一: 而詩句尚艷頹, 乏韻致, 未稔何以御風?) (胡震亨, 『唐音癸籤』 권7)

“그 시 ‘단지 말하네 여러 사람의 말이 천금을 녹인다고, 누가 믿겠나 혼자만의 근심이 조각 옥을 녹일 줄을’ 길고 짧은 사랑 노래를 넘은 저절로 이해하고, 얇고 깊은 밤 시간을 지는 특히 알지요’ …… ‘남편이 하룻밤 나가 자면, 수척해져 복숭아 꽃이 절반이 된다네’은 모두 정을 말하는데 뛰어난 슬프고 염정적이고 완곡하여 결코 은자의 시어같지 않다.”(然其詩如‘只言衆口鑠千金, 不信獨愁銷片玉’長短艷歌君不解, 淺深更漏妾偏知’ …… ‘良人一夜出門宿, 減却桃花一半紅’, 皆善於言情, 哀艷宛轉, 絕不類隱者之語”)(『石園詩話』 권2 清 余成教, 『清詩話續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1767쪽)

9) “人但知三十六體始於溫李, 不知李賀是其所宗, 而元和時施肩吾實已先之. 肩吾 …… 爲詩奇麗, 以近體名於時”(陳伯海, 『唐詩彙評(中冊)』,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 2252쪽)

시견오의 시 중 특히 기녀를 소재로 쓴 시는 대체로 역대 비평가들이 높이 평가한 艷詩와 범위가 교차되는 부분이 많다. 또 이러한 기녀를 소재로 한 시들은 큰 주제로부터 개인적이고 생활의 작은 것들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던 중당 문인들의 內向性의 한 경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중당 시인 시견오 시 연구의 일환으로 그의 시 중 먼저 기녀를 소재로 한 시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중당의 다른 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시견오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시견오가 기녀를 소재로 쓴 시 즉, 「襄陽曲」 「大堤新詠」 「拋纏頭詞」 「及第後夜訪月仙子」 「金吾詞」 「古相思」 「贈女道士鄭玉華」 二首 「夜宴曲」 「冬詞」 「觀美人」 「觀舞女」 등 총 12수<sup>10)</sup>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 시들을 ‘당대 과거급제 후 풍류 표현’ ‘기녀와의 사랑을 仙道에 기탁’ ‘기녀의 색정적 아름다움 강조’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시견오 생애

중당시인 시견오는 『施氏宗譜』 권3 『事行誌』 등의 기록에 따르면 대략 780년(唐 德宗 建中 元年)에 태어나 861년(唐 懿宗 咸通 2년) 82세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목주(睦州) 분수현(分水縣) 동현향(桐峴鄉) 사람이다.<sup>12)</sup> 시견오의 아버지 대에 施家村으로부터 근처의 葉家村으로 이사를 갔다. 시견오의 자는 희성(希聖)<sup>13)</sup>이며, 호가 서진자(棲眞子)이다. 시견오의 고향에는 다음과

10) 이 12수 중에는 ‘美人’ ‘舞女’ ‘女道士’ 등을 소재로 한 시들도 있는데 ‘美人’ ‘舞女’는 시 내용상 기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女道士’는 당대에 기녀와 비슷한 역할을 했으므로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11) 시견오의 생졸 연한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780년~861년 사이에 살았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견해이다. 오대에서 송초까지 살았던 또 다른 시견오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당대의 시견오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12) 지금의 浙江省 富陽市 洞橋鎮 賢德片 仁阮村의 施家自然村이다. 시견오의 고향도 洪州, 睦州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睦州 사람인 것으로 학계의 의견이 모아진다.

13) 그의 자 希聖은 성인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담고 있으며 이런 마음은 세 아들의 이름에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시견오는 초년에 마을 동쪽 五雲山의 어느 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절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시견오가 그 연못에서 붓과 벼루를 씻었기에 그 연못을 '洗硯池'<sup>14)</sup>라 부르고 그가 책을 읽은 정자를 '餘韻亭'이라 했다 한다.<sup>15)</sup> 『桐廬縣誌』에 따르면 淸 道光 7년(1827) 五雲山에 石碑를 세워 '唐壯元施東齋讀書處'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다. 이 석비는 1966년에 훼손되었다가 1988년에 다시 복구되었다. 820년(唐 元和 15년) 시견오는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당시에 과거 급제를 하면 기루 출입을 하는 하는 일이 흔했는데, 시견오도 과거 급제 후 기루를 출입한 경험을 자신의 시에 남기고 있다. 시견오는名利에 크게 관심이 없어 과거 급제 후 벼슬을 하지 않고 귀향하였다. 아래의 「上禮部侍郎陳情」<sup>16)</sup>을 보면 빈한한 가문 출신으로 의지할 만한 배경이 없었던 시견오가 과거 급제 후 벼슬길이 여의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九重城裏無親識, 구중 성 안에 친한 벗 없고,  
八百人中獨姓施, 팔백 사람 중에 홀로 성이 시씨입니다.  
弱羽飛時撰箭險, 약한 깃 날 때는 모여드는 화살에 위험하고,  
蹇驢行處薄冰危, 질룩거리는 당나귀 가는 곳 얇은 얼음이라 위태롭지요.  
晴天欲照盆難反, 맑은 하늘이 비추려 해도 동이 뒤집기 어렵고,  
貧女如花鏡不知, 가난한 여인이 꽃 같아도 거울은 알지 못합니다.  
卻向從來受恩地, 여전히 예전에 은혜 받은 곳을 향해,  
再求青律變寒枝, 다시 간청합니다 봄이 추운 가지를 변화시켜주시지요.

이 시는 시견오가 급제할 때 과거 시험관 知貢舉였던 李建에게 올린 것이다. 李建은 원화 15년(820)에 太常少卿으로서 知貢舉였는데 그 해 2월 29일에 禮部侍郎에 임명되었다.<sup>17)</sup> 제목으로 보아 이 시는 李建이 禮部侍郎일 때 올렸음을

나타낸다. 큰 아들은 宗堯, 둘째 아들은 宗舜, 세째 아들은 宗禹였다 한다. 이 외에 딸도 하나 있었는데 당시 시인이었던 何景堯에게 시집갔다 한다.

14) 洗硯池에는 시견오가 직접 심은 白蓮花가 있었는데 다른 白蓮花와 달리 꽃잎과 연잎에 검은 점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다. 일설에 의하면 이는 시견오가 붓을 씻을 때 뿌린 것으로 그 꽃을 墨迹白蓮이라 했다 한다.

15) “慶雲山, 在分水縣東南里許, 一名五雲山. 唐長慶中, 有五色雲見, 因名, 施肩吾讀書於此. 其巔有洗硯池”(『欽定大清一統誌』卷234)

16) 『전당시』, 제15책, 5586-5587쪽.

17) 『憲宗』 원화(元和) 15년(820) 윤정월 15일에 태상소경(太常少卿)으로서 지공거(知貢舉)

알 수 있다. 이 시를 통해 시견오는 자신이 장안에 이는 사람 없이 외로운 처지이며, '약한 깃(弱羽)'과 '절룩거리는 당나귀(蹇驢)'로 자신을 비유하여 벼슬길 등용을 이진이 도와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시 속의 '봄(靑律)'은 이진을, '추운 가지(寒枝)'는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시견오는 과거 급제 후 벼슬을 하지 않고 귀향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이 고향 친구 徐凝<sup>18)</sup>에게 보내는 편지 「與徐凝書」에 잘 나타나 있다.

제가 다행히 부끄럽게도 명성을 얻었을지라도 스스로 불운함을 알았기에 도교에 마음을 기탁하여 숲과 산골짜기에서 養性했습니다. 선대 성인에게 의지하여 도움 받았기에 비록 나이가 말년에 가까워질지라도 다행히 초라함은 면했습니다. 그 얻은 바를 보면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sup>19)</sup>

이 때 시견오는 문단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어서 당시의 대시인 白居易, 張籍 등과 교류하고 唱和하였다. 시견오가 귀향할 때 張籍은 「送施肩吾東歸」<sup>20)</sup>를 썼다.

知君本是烟霞客,	그대가 본래 연하객임을 알았건만
被薦因來城闕間.	발탁되어 도성에 왔었지.
世業偏臨七里瀨 <sup>21)</sup> ,	집안 대대로 칠리뢰 가까이 살았지만
仙遊多在四明山.	신선의 유람 대부분 사명산에 있었다네.
早聞詩句傳人徧,	일찍 시구 유명해져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新得科名到處閑.	새로이 과거 명성 얻어도 곳곳에서 한가롭네.

가 된 이진(李建)은 과거를 주관하면서 29명을 선발했는데, 그 해 2월 29일에 예부시랑(禮部侍郎)에 임명되었다.(元和十五年閏正月十五日, 太常少卿知貢舉李建下二十九人, 至二月二十九日, 拜禮部侍郎.) (王定保 저, 김장환 역, 『唐摭言』(서울: 학고방, 2013.) 327쪽.)

18) 徐凝도 睦州 출신으로 施見吾와 徐凝은 睦州 출신의 시인들을 이르는 '睦州詩派'에 속하기도 한다.

19) 僕雖幸忝成名, 自命命薄, 遂棲心玄門, 養性林壑. 賴先聖扶持, 雖年迫遲暮, 幸免龍鐘. 觀其所得, 如此而已. (陳才智 王益庸 編, 『施肩吾集』(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7.) 78쪽.)

20) 清 彭定求 等 編, 『全唐詩』, 제12책, 北京, 中華書局, 2008, 4339쪽.(뒤에 나오는 『全唐詩』는 모두 서지사항 생략)

21) '칠리뢰(七里瀨)'는 절강(浙江) 동려현(桐廬縣) 부춘강(富春江)에 있으며 그 아래로 몇 리 거리에 엄릉뢰(嚴陵瀨)가 있다. 시 속에서 '칠리뢰(七里瀨)'는 시견오의 절강성 고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惆悵瀟亭相送去,            슬피하며 瀟橋의 長亭에서 서로 보내니,  
雲中琪樹<sup>22)</sup>不同攀.        구름 속 玉樹를 함께 오르지 못하네.

王定保의 『唐摭言』엔 “급제 후에 은거함(及第後隱居)”에 시견오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시견오(施肩吾)는 [憲宗] 원화(元和) 10년(815)에 진사에 급제했다. 홍주(洪州)의 서산(西山)은 십이진군(十二眞君)이 우화등선(羽化登仙)한 곳으로 그 신령스러운 자취가 모두 남아 있었는데, 시견오는 신선의 풍모를 흠모하여 그곳에 은거했다. 그는 일찍이 「한거견흥(閑居遣興)」시 100운을 지었는데 세상에 널리 전해졌다.<sup>23)</sup>

여기서 언급한 「한거견흥(閑居遣興)」은 현재 『全唐詩』 권494에 “荷翻紫蓋搖波面, 蒲莖青刀插水湄” “煙黏薜荔龍鬚軟, 雨壓芭蕉鳳翅垂”의 두 연만 남아 있다. 과거 급제 후 귀향한 시견오를 두고 張籍은 「贈施肩吾」<sup>24)</sup>에서도 “세상에서는 많은 일 없음을 점차 깨달아, 비록 헛된 명성 있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네(世間漸覺無多事, 雖有空名未著身)”라 했고, 고향 친구 徐凝<sup>25)</sup>은 「回施先輩見寄新詩二首」<sup>26)</sup> 중 제2수에서 “추측컨대 仙宮의 신선 명부에서, 그대처럼 진사 출신 드물거라네(料得仙宮列仙籍, 如君進士出身稀)”라 노래했다.

귀향한 이후 시견오는 출가하여 도사가 되어 스스로 棲眞子라 불렀다. 洪州(지금의 南昌)의 西山으로 옮겨 가 그 곳에서 은거하며 수도생활을 하면서 도교사상사에서 유명한 『양생변의결(養生辨疑訣)』 등의 책을 썼다. 시견오는 중국도교사에서 氣功養生學을 창도하여 중국 기공양생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도를 닦다가 시간이 되면 술과 시를 즐겼다. 그는 자신이 쓴 『西山集』 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22) 琪樹는仙境(仙境)의 옥수(玉樹)를 가리킨다.

23) 施肩吾, 元和十年及第. 以洪州之西山, 乃十二眞君羽化之地, 靈蹟具存, 慕其眞風, 高蹈於此. 常賦「閑居遣興」詩一百韻, 大行於世.(王定保 著, 김장환 역, 『唐摭言』, 서울, 학고방, 2013, 455-456쪽.)

24) 『전당시』, 제12책, 4360쪽.

25) 徐凝도 睦州 출신으로 施見吾와 徐凝 등은 모두 睦州 출신의 시인들을 이르는 ‘睦州詩派’에 속하기도 한다.

26) 『전당시』, 제14책, 5386쪽.

말했다.

이십년간 초목이 울창한 소나무 사이 달 아래에서 고생하여 혹은 때때로 거북이의 호흡을 배웠으며, 마시지만 먹지 않아 위장에 찌꺼기가 없었고 육체와 정신이 더욱 맑아져 천지와 육합의 오묘함을 보았다. 대개 기이한 조짐과 특이한 모양이 마음과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여 한 번 받아들이면, 모두 내 문장 그물 속에 떨어졌다.<sup>27)</sup>

당시 『西山集』은 널리 전해졌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시는 현재 『전당시』 권494에 200여 수가 실려 있으며 송대 洪邁의 『만수당인절구』에 180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 외 童養年の 『全唐詩續補遺』 권6에 실린 遺詩 8수와 陳尙君의 『全唐詩續拾』 권27의 遺詩 3수와 殘詩 2구, 일본 河世寧의 『全唐詩逸』의 逸詩 1聯 등이 전해진다.

西山에 은거하며 修道에 전념하던 시견오에게는 바다 밖 仙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싹텄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842년(唐 武宗 會昌 2년) 이름없는 작은 섬에 올랐는데 바로 지금의 대만 澎湖 列島였다. 시견오는 이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澎湖 列島를 개척한 첫 번째 사람으로 평가받는다.<sup>28)</sup> 당시 澎湖 열도에는 소수의 원주민이 원시상태로 살고 있었다. 시견오 가족의 이주는 澎湖의 생산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또 대륙의 문명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9)</sup> 그의 시 「島夷行」<sup>30)</sup>은 중국에서 최초로 澎湖를 노래한 시로 알려져 있다.

腥臊海邊多鬼市,	비린내 나는 해변에 야시장 많은데,
島夷居處無鄉里.	섬 원주민 사는 곳에 마을 없네.
黑皮年少學採珠,	검은 피부 소년 진주 캐는 거 배워,
手把生犀照鹹水.	손에 무소뿔 쥐고 짠 물에 비추네.

27) 二十年辛苦烟蘿松月之下, 或時學龜息, 飲而不食, 腸胃無滓, 形神益清, 見天地六合之奧. 凡奇兆異狀, 闕乎心目者, 銳思一授, 皆落我文字網中.(清 余成教, 『石園詩話』권2, 『清詩話續編』, 1767쪽.)

28) 시견오 이전에 오나라 손권이 澎湖 열도에 군대를 파견한 적이 있었으며, 수나라 때에도 세차례 사람을 보내 대만에 머물게 했었다.

29) 『臺灣史話』(1955), 『臺灣省地圖冊』(1981), 『中國臺灣省地圖』(1989) 등에 당대 시인 시견오가 가족을 데리고 대만에 이주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30) 『전당시』 제15책, 5592쪽.

팽호 열도의 원주민이 살았던 초가집이 왜소한데다 산의 동굴 같은 데 흠어져 살았기 때문에 시견오는 이 시에서 마을이 없다고 표현했다. 팽호에서 진주 생산에 필요한 무소뿔은 泉州 상인이 廣州 교역에서 얻어 팽호로 가져 왔다 한다. 시견오가 팽호에서 쓴 시는 「島夷行」 외에도 「錢塘渡口」「曉光詞」「海邊遠望」「贈友人歸武林」「秋吟獻李舍人」 등이 있다.<sup>31)</sup> 시견오가 팽호 열도로 이주한 것은 도교 은둔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도가의 修行을 위해 은둔할 지역을 찾다가 팽호 열도를 가게 되었다. 대만과 팽호는 고대 전설에서 신선이 사는 곳으로 불사약과 黃金과 白銀으로 만든 궁궐 등이 있다고 알려졌던 곳이기도 하다. 시견오는 팽호에서 20여년을 살았으며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몇 년 후 가족들이 그 유해를 고향으로 옮겨 안장했다.

### 3. 시견오 기녀 소재 시의 특징

중당시기에는 안사의 난 이후 아직 그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환관이 권력을 휘두르고, 藩鎮이 지방 세력으로 군림하고, 이민족이 빈번하게 침입하는 등 外憂 內患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문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의 생활태도는 성당의 理想主義와 英雄主義로부터 평범하고 세속적인 人倫의 감정과 가정생활의 즐거움 쪽으로 전향하는 경향을 보였다.<sup>32)</sup> 이러한 중당 문인들의 內向性은 술과 꽃, 차 등에 탐닉하거나 기녀와의 교류를 즐기는 것 등으로도 표현되었다. 중당시인 시견오가 기녀를 소재로 한 시를 쓴 것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당대 문인들은 기녀와 교류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여<sup>33)</sup> 狎妓가 당시 널리 유행했다. 중당을 대표하는 시인인 백거이의 경우 67세 때 쓴 시 「追歡偶作」에서 “3년마다 늙고 추해진 게 싫어 아름다운 이들로 바꾸네(三嫌老醜換蛾眉)”라 하여 나이 들고 못생

31) 이 시들은 팽호열도의 민속과 풍토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32) 蔣寅, 『大曆詩人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5, 11쪽 참조.

33) “唐人尙文好狎.”(宋, 張端義, 『貴耳集』卷下)

겨진 기녀가 싫어져 3년마다 젊고 예쁜 기녀로 바꾸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시견오가 기녀를 소재로 한 시를 쓴 시기는 시의 내용으로 보아 대체로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난 후부터 귀향하여 도교 도사가 되기 전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장에서는 시견오가 기녀를 소재로 쓴 시들을 ‘당대 과거급제 후 풍류 표현’ ‘기녀와의 사랑을 仙道에 기탁’ ‘기녀의 색정적 아름다움 강조’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당대 과거급제 후 풍류 표현

당나라 孫啓가 기녀들의 이야기를 쓴 『北里誌』에 의하면 당시 관리나 새로 진사에 급제한 사람들의 기루 출입이 보편적인 일이었다. 관리들이 연회를 열 때는 공문이 있어야만 기녀들을 부를 수가 있었는데, 새로 급제한 진사들의 경우 별도의 공문 없이 수도 長安에 있었던 平康坊에 갈 수 있었다. 平康坊은 당시 기루와 기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北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다.

장안의 술시중 드는 기녀들은 교방에 적을 두었다. 모든 관리들은 연회를 벌일 때면 반드시 각각의 부서에서 발행한 공문, 즉 행첩을 보내야만 기녀들을 연회에 부를 수가 있었다. 오직 새로 된 진사들만이 연회를 베풀어 관리들을 모실 때는 직접 공문을 보낼 수 있었다. [행첩 발행에] 사용된 돈을 따져 보면 일반적인 액수의 배가 되었다.

기녀들은 모두 평강리에 살았는데 거자, 새로 급제한 진사, 삼사막부만은 조정의 관리를 통하지 않아도 궁중에서 숙직을 하는 신분만 아니라면 다 평강리에 갈 수가 있었다. 그들은 평강리에 가서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수레에서 내리면 바로 산해진미가 갖추어졌다.<sup>34)</sup>

근자에는 과거를 준비하는 사인들이 모두 복리에 오지는 않았고 다만 봄에 한차례씩 그 해에 새로 급제한 사람들만이 마음 내키는 대로 노닐다 갔다.<sup>35)</sup>

34) 京中飲妓, 籍屬教坊, 凡朝士宴聚, 須假諸曹署行牒, 然後能致於他處, 惟新進士設筵顧吏, 故便可行牒. 追其所贈之資, 則倍於常數. 諸妓皆居平康里, 舉子、新及第進士、三司幕府但未通朝籍, 未直館殿者, 咸可就詣, 如不恡所費, 則下車水陸備矣. (손계·최령흠 지음, 최진아 옮김, 『북리지·교방기』, 소명출판, 2013, 43쪽)

『북리지』에는 또 이 책의 지은이 손계가 진사 이문원과 그 해에 처음 진사 급제한 사람들과 함께 취기가 올라 兪洛眞이라는 기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문원은 기녀 유락진에게 단번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소재로 하여 손계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引君來訪洞中僊,	그대를 이끌어 신선굴의 선녀를 방문할 때,
新月如眉拂戶前.	눈썹 같은 초승달은 문 앞 가까이 있었네.
領取嫦娥攀取桂,	항아 선녀 얻고 과거도 급제하였으니,
便從陵谷一時遷.	바로 한 순간에 세상이 변한 것이라네.

이 시에서는 기녀를 달 속의 선녀 嫦娥에 비유하고 있는데, 당시 진사 급제한 문인들이 기녀와의 풍류를 즐기면서 한 순간에 세상이 바뀐 것 같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36)</sup> 시건오도 과거 급제 후<sup>37)</sup> 기루를 출입했음이 다음 시 『及第後夜訪月仙子』<sup>38)</sup>의 제목에서 명확하게 보인다. 제목의 ‘月仙子’는 기녀를 가리킨다.

自喜尋幽夜,	스스로 그윽한 밤 찾기 좋아했던 건,
新當及第年.	새로 진사에 급제한 해였지.
還將天上桂,	하늘 위 계수나무 꺾어 와서,
來訪月中仙.	달 속의 선녀에게 방문하러 오네.

위의 시 제 1,2구에서는 진사 급제 후 밤에 기녀와 즐겼음을 노래하고 있다. 제 3구의 ‘將桂’는 ‘折桂’ 즉 ‘계수나무 가지를 꺾는다’의 뜻으로 과거급제를 의미한다. 쯤나라 武帝 때 극선(郤詵)이라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 웅주자사(雍州刺史)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무제가 극선에게 그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극선이 자신이 선발된 것은 “계수나무 숲에서 가지 하나를 꺾은 것에 불과하고, 곤륜산 아래에서 옥석 하나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猶桂林之一枝, 昆山之片

35) 頃年, 舉子皆不及此里, 惟新郎君恣遊於一春.(앞의 책, 141쪽)

36) 앞의 책, 104-112쪽 참조.

37) 元和 15년 즉 820년의 일이다.

38) 『전당시』, 제15책, 5590쪽.

玉)라 대답한데서 유래했다. 제 3,4구에서도 진사 급제와 기녀를 찾는 것의 상관 관계를 밝히며 진사 급제 후 기녀를 찾아 즐겼던 일을 잘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拋纏頭詞」에서도 기녀와 즐겼던 일을 노래하고 있는데, 기녀의 춤과 노래를 감상하고는 기녀의 머리쓰개를 찢어 가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翠娥初罷繞梁詞 <sup>39)</sup> ,	미녀가 막 아름다운 노래 끝내니,
又見雙鬢對舞時.	또 보네 소녀가 짝지어 춤추는 때를.
一抱紅羅分不足,	한 아름 붉은 비단 나누기에 부족하여,
參差裂破鳳凰兒.	들쭉날쭉 찢네 봉황 수 놓인 비단 머리쓰개를.

기녀의 가무를 감상한 뒤 봉황 수놓인 비단 머리쓰개를 찢어 갖는 모습을 통해 당시 기녀와 즐기던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 급제 후 기녀와 즐기는 것을 풍류로 삼던 당시 분위기 속에서 시건오는 진사가 된 후 湖北省 襄陽에서 기녀와 즐겼던 시들도 남기고 있다. 「襄陽曲」<sup>40)</sup>을 본다.

大堤 <sup>41)</sup> 女兒郎莫尋,	大堤의 아가씨를 낭군은 찾지 마시오,
三三五五結同心.	그녀들은 삼삼오오 한 마음이랍니다.
清晨對鏡理容色,	맑은 새벽 거울 마주하고 용모 꾸미지만,
意欲取郎千萬金.	마음으로는 낭군의 천만금 취하고자 하네요.

大堤는 호북성 襄陽을 長江의 최대 支流인 漢江의 범람에서 보호하기 위해 쌓은 둑이다. 이 곳 포구에 유곽이 있었다 한다. 시건오는 『樂府詩集·清商曲辭』중 「襄陽樂」에서 제목을 빌어와 이 시를 새롭게 창작했다.<sup>42)</sup> 이 시에는 襄陽의 기녀가 아름답게 꾸미며 낭군을 금전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시건오는 시 속에서 기녀와 어울리며 파악했던 기녀의 금전 중시 습성을 담아내고 있다. 시건오는 칠언절구를 즐겨 창작했는데 기녀를 소재로 한 시에도 대체로 칠언절구가 많다. 다음의 「大堤新詠」<sup>43)</sup>에서도 襄陽의 기녀들을 노래하고 있다.

39) '繞梁詞'는 곱고 아름다워 여음이 맴돌아 끊어지지 않는 노래소리나 음악을 가리킨다.

40) 『전당시』, 제15책, 5601쪽.

41) 湖北省 襄陽縣에 있는 제방 이름.

42) 『樂府詩集·清商曲辭』중 「襄陽樂」 제 1수 "朝發襄陽城, 暮至大堤宿. 大堤諸女兒, 花艷驚郎目."에서 제목과 분위기를 빌려왔다.

行路少年知不知,	길 위의 젊은이 아는지 모르는지,
襄陽全欠舊來時.	양양은 모두 예전에 왔을 때와 같지 않음을.
宜城 <sup>44)</sup> 賈客載錢出,	의성 상인 싣고 온 돈 쓰고는,
始覺大堤無女兒.	비로소 깨닫네 대제에 아가씨 없음을.

이 시도 『樂府詩集·清商曲辭』중 「雍州曲」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것인데<sup>45)</sup>, 襄陽 大堤의 기녀들이 상인의 돈만 취하고 진실된 마음은 없음을 노래했다. 시견오의 시 「旅次文水縣喜遇李少府」<sup>46)</sup>를 보면 “함께 추억하네 양양에서 같이 취했던 곳, 尙書는 자리에서 은 술잔 받았었지(共憶襄陽同醉處, 尙書坐上納銀觥)”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尙書는 원화 13년에서 원화 15년까지 檢校工部尙書로 襄州刺史를 했던 孟簡을 가리킨다. 시견오가 원화 15년에 진사 급제한 것을 감안하면, 그가 과거 급제 후 잠시 장안에 머물 때 양양에 가서 기녀와 즐기기도 하고 양양의 자사였던 맹간과 술자리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나라 때 과거 급제 후 문인들이 기루 출입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이는 문인들에게 풍류의 하나로 여겨졌다.<sup>47)</sup> 시견오가 기녀를 소재로 쓴 시에는 이처럼 당대 과거에 급제한 문인들의 풍류가 잘 표현되어 있다.

## 2) 기녀와의 사랑을 仙道에 기탁

중당 문인들은 기녀와의 교류를 즐겼으며 도교의 영향 아래 기녀를 흔히 신선으로 비유했다.<sup>48)</sup> 또 기루를 흔히 仙境으로 비유했는데 기루는 일상생활과 塵世를

43) 『전당시』, 제15책, 5609쪽.

44) 宜城은 호북성 서북부에 위치하며 현재는 襄陽市 관할의 縣級 도시이다.

45) 『樂府詩集·清商曲辭』중 「雍州曲」 제3수 “宜城斷中道, 行旅極留連. 出妻工織素, 妖姬慣數錢. 炊雕留上客, 貰酒逐神仙.”을 바탕으로 창작했다.

46) 『전당시』, 제15책, 5600쪽.

47) 시견오와 동시대 시인인 원진의 경우도 명경과에 급제하고 등용을 기다리던 기간에 普救寺에서 최영애와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원진의 자전적 소설 『앵앵전』을 보면 앵앵이 양가집 규수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중당시기 문인들이 과거 급제 후 연애를 하거나 기루를 출입하던 당시의 풍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48) 중당 문인들은 기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과의 만남도 흔히 선녀와의 만남으로 노래했다. 원진 『고염시』 제2수에서는 동한의 완조가 천태산에 들어가 선녀를 우연히 만나는 이야기를 빌어 자신과 앵앵의 만남을 비유하고 있다.

벗어난 곳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당대에는 도교가 흥성하면서 縱欲의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다. 통치자들도 도교를 숭상했는데<sup>49)</sup> 그 이유는 도교를 이용하여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것 외에 도교의 장생술과 방중술 등이 그들의 구미에 특히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교는 힘든 수행을 제창하는 반면 도교는 즐길 수도 있고 장생할 수도 있었기에 도교 숭상은 당시 縱欲의 사회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만당 시기에는 황제부터 大臣까지 도교에 심취했으며, 한유와 같은 名公도 金石을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다.<sup>50)</sup> 시견오의 「金吾詞」<sup>51)</sup>에서도 둘째 구에서 기녀를 신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行擁朱輪錦幘兒, 화려한 수레 타고 비단 휘장 드리운 젊은이,  
望仙門外叱金羈, 기녀 바라보며 문 밖에서 금 재갈 문 말에게 소리치네.  
染鬢偷嫩無人覺, 수염 염색하여 몰래 젊게 해도 아는 이 없어,  
唯有平康小婦知, 오직 平康坊의 젊은 기녀만이 안다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제 2구의 '仙'은 제 4구의 '平康小婦' 즉 '平康坊의 젊은 기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기녀를 찾아온 金吾 벼슬 하는 이가 수염 염색한 것을 기녀만 안다는 표현을 통해 기녀와의 교류가 그만큼 잦고 밀접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古相思」<sup>52)</sup>에서도 기녀와의 만남을 선녀와의 사랑에 기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十訪九不見, 열 번 찾아서 아홉 번 보지 못하니,  
甚於菖蒲花, 창포꽃보다 심하구나.  
可憐雲中月, 어여쁜 구름 속의 달,

49) 老子의 이름이 李耳였기에 당나라는 高祖 李淵부터 가문을 높이고 李氏 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도교를 숭상하였다. 武德 8년(623) 고조는 조령을 선포하여 도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을 유교, 그 다음을 불교로 하는 순서를 규정하였다. 高祖 이후에는 玄宗과 武宗이 도교를 숭상했던 임금이다.

50) 한유의 죽음은 장생약을 먹은 것과 관련이 깊다. 백거이의 시 『思舊詩』에서 “退之服硫磺, 一病竟不痊”라 했다. 이전 문인들의 도교 숭상이 정신적인 고민을 덜고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중만당 시기의 문인들의 도교 숭상은 주로 長生과 縱欲을 위한 것이었다.

51) 『전당시』, 제15책, 5600쪽. 제목의 '金吾'는 중국의 옛 관직명으로 황제와 대신의 경비, 의장(儀仗) 및 수도의 순찰과 치안을 관장하던 무관이다.

52) 『전당시』, 제15책, 5590쪽.

今夜墮我家.      오늘 밤 우리 집에 떨어지네.

이 시에서는 기녀를 여러 번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밤 함께 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으며 기녀를 달 속의 선녀 嫦娥에 비유하고 있다. 기녀와의 사랑을 신선과의 연애에 기탁하여 표현함으로써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중당 시인들이 즐겨 쓴 기법으로 신선과의 사랑으로 표현했기에 때로는 방탕하게 쓸 지라도 음란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

시건오의 시에는 도교 여도사의 사랑을 노래한 것도 있다. 陳寅恪은 『元白詩箋證稿』의 「讀鶯鶯傳」중에서 “전해 내려와 唐代에 이르면 仙(여성)이라는 말은 대부분 요염한 부인이나 방탕한 여도사를 대신하는 명칭으로 쓰였는데, 또 의외로 그들을 창기로 보는 사람도 있다”<sup>53)</sup>라며 唐代에 문인들이 즐겨 쓴 ‘仙’의 의미에는 요염하거나 방탕한 여성의 뜻이 들어 있으며 여도사는 기녀와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언급했다. 특히 중당 이후 시에 보이는 ‘仙’ ‘眞’ ‘仙女’ 등은 흔히 여도사나 기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교에서는 성욕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도술을 가진 사람과 성교를 하면 만병을 치료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남성들은 방중술을 잘 아는 여성과 성교를 맺기를 원했으며, 여도사들은 성행위를 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시건오의 「贈女道士鄭玉華」<sup>54)</sup> 二首중 제 1수를 본다.

玄髮新簪碧藕花,	검은 머리 새 비녀의 푸른 연꽃,
欲添肌雪餌紅砂.	백설같은 피부 돋보이려 홍사 짙어 유혹하네.
世間風景那堪戀,	세간의 풍경이라면 어찌 연애를 했겠나며,
長笑劉郎漫憶家.	늘 비웃네 유신이 헛되이 집 그리워했음을.

이 시 앞 두 구에서는 여도사 鄭玉華의 관능미를 묘사하고 있다. 검은 머리에 푸른 연꽃이 장식된 비녀의 화려함과 흰 피부 돋보이게 하려고 홍사를 얼굴에 바

53) “流傳至於唐代, 仙(女性)之一名, 遂多用作妖艷婦人, 或風流放誕之女道士之代稱, 亦竟有以之目倡伎者”(陳寅恪, 『元白詩箋證稿』, 『隋唐制度淵源略論稿(外二種)』,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419쪽)

54) 『전당시』, 제15책, 5599쪽.

른 색정적인 모습을 묘사했다. 뒤 두 구에서는 여도사 정옥화가 동한의 劉晨이 집에 연연해한 것을 비웃음을 노래했다. 유신은 천태산에 약을 캐러 갔다가 우연히 선녀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그가 반년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이는 사람이 없었고 뒤에 다시 천태산에 가 선녀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시에서 시견오는 여도사 정옥화의 시선을 통해 인간과 달리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신선의 세계를 보여주며, 유신이 헛되이 인간 세상에 연연해했음을 조롱하고 있다. 이처럼 仙道에 기탁하여 감정을 표현한 것은 주로 중만당 문인 애정시에 보이는 독특한 풍조로 중당 이전과 송 이후의 애정시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신선 세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서 먼저 구애를 하는데, 중당 문인들이 신선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당시 기녀나 여도사 등과의 연애 정도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견오의 기녀 소재 시도 이처럼 기녀와의 사랑을 신선과의 사랑으로 표현하거나 여도사의 자유로운 사랑을 仙道에 기탁하여 노래하고 있다.

### 3) 기녀의 색정적 아름다움 강조

중당 시기 문인들이 기녀를 소재로 쓴 시에는 여성의 색정적 아름다움을 묘사한 시들이 많다. 예를 들어 白居易의 「與牛家妓樂雨後合宴」, 張祐의 「周員外席上觀柘枝」, 劉長卿의 「揚州雨中張十七宅觀妓」 등이 그러한 시인데 주로 기녀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시견오의 시에도 기녀의 관능적이고 색정적인 외모를 묘사한 것들이 있다. 먼저 「夜宴曲」<sup>55)</sup>을 본다.

蘭缸如晝曉不眠,	향유 타는 등 낮과 같아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玉堂 <sup>56)</sup> 夜起沈香煙.	옥당에는 밤에 짙은 향 연기 피어오르네.
青娥一行十二仙,	아리따운 소녀 한 줄에 열 두 선녀,
欲笑不笑桃花然.	웃으려다 웃지 않아 복숭아꽃 같네.
碧窗弄嬌梳洗晚,	푸른 비단 창에선 꾸미고 단장하느라 늦어,

55) 『전당시』, 제15책, 5585쪽.

56) 신선의 거처.

戶外不知銀漢轉.	문 밖에선 은하수 흘러가는 거 알지 못하네.
被郎嘖罰琉璃盞.	낭군이 화난 벌로 유리잔 받으니,
酒入四肢紅玉軟.	술이 사지로 들어가 붉은 옥같은 피부 보드랍네.

위의 시는 새벽까지 계속되는 화려한 연회에서 아리따운 기녀들이 춤을 추는 광경과 술을 마신 후의 관능적인 모습을 노래했다. 제 3,4구에서는 열 두 기녀가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춤을 추는 모습을, 제 7,8구에서는 술이 들어가 기녀의 피부색이 붉게 변하는 모습을 육감적으로 표현했다. 다음에 인용하는 「冬詞」<sup>57)</sup>에서는 누웠다 막 일어난 여인의 얼굴에 분이 남아있는 모습과 머리 매만지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錦繡堆中臥初起.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 누웠다 막 일어나,
芙蓉面上粉猶殘.	부용꽃 같은 얼굴 위의 분 아직 남아있네.
臺前也欲梳雲髻.	경대 앞에서 또 쪽진 머리 빗으려하며,
只怕盤龍手捻難.	단지 걱정하네 용 장식 손으로 잡기 어려움.

분이 살짝 남아있는 부용꽃같은 여성의 얼굴과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장하는 모습이 관능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觀美人」<sup>58)</sup>도 미인의 눈동자, 머리 쓰개, 아리따운 미소 등 고희적인 여성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漆點雙眸鬢繞蟬.	검은 점 같은 두 눈동자, 살짝 머리에 두른 얇은 비단은,
長留白雪占胸前.	길게 늘어져 흰 눈처럼 가슴 앞을 차지하네.
愛將紅袖遮嬌笑.	붉은 소매로 아리따운 미소 가리길 좋아하여,
往往偷開水上蓮.	늘 물 위의 연꽃 몰래 핀 것 같네.

이같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색정적인 묘사는 다른 중당 문인의 애정시나 여성 소재 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원진이 앵앵과의 사랑을 노래한 애정시 중의 하나인 「恨妝成」<sup>59)</sup>에는 앵앵이 원진과의 밤을 즐긴 뒤 새벽에 단장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다.

57) 『전당시』, 제15책, 5608쪽.

58) 『전당시』, 제15책, 5604쪽.

59) 元稹 撰, 冀勤 點校, 『元稹集』, 中華書局, 1982, 682쪽.

曉日穿隙明,	새벽 해가 틈 사이로 밝게 비추니,
開帷理妝點.	휘장을 열고 단장을 하는구나.
傅粉貴重重,	분을 바르니 귀한 자태 흐르고,
施朱憐冉冉.	뺨에 연지 붉게 바르니 어여쁨이 빛나는구나.
柔鬢背額垂,	부드러운 머리 이마로 흘러내리고,
叢鬢隨釵斂.	쭈뼌한 귀밑머리 비녀로 모아지네.
凝翠暈蛾眉,	비취 빛을 모아 초승달 같은 눈썹 그리고,
輕紅拂花臉.	붉은 색을 가볍게 꽃같은 뺨에 터네.
滿頭行小梳,	머리 가득 작은 빗으로 빗고,
當面施圓靨.	얼굴 마주하니 붉은 보조개 피어나네.
最恨落花時,	꽃이 질 때가 가장 한스러우니,
妝成獨披掩.	단장을 다하고 홀로 가리개를 걸치네.

이 시에서는 분과 연지를 바르는 모습, 머리를 매만지고 눈썹을 그리고 화장하는 모습 등을 통해 앵앵의 요염함이 잘 표현되고 있다. 위 시견오의 시 「觀美人」과 원진의 시 「恨妝成」은 여성의 고풍적이고 색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를 통해 중당 시풍 중의 하나인 '艷麗'한 시풍을 엿볼 수 있다. 시견오는 다음의 「觀舞女」<sup>60)</sup>에서는 무녀의 화려한 춤 뒤에 숨겨져 있는 처량함을 묘사하고 있다.

纏紅結紫畏風吹,	붉은 천 감고 자주빛 천 묶은 채 바람불까 걱정하며,
嫋娜初回弱柳枝.	곱고도 가냘프게 막 도니 연약한 버드나무 가지같네.
買笑未知誰是主,	웃음 구하기에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한 채,
萬人心逐一人移.	많은 사람 마음이 한 사람 좇아 움직이네.

이 시에서 시견오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연약한 무녀의 춤추는 모습에서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가련함을 포착하여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앞 두 구에서는 무녀의 가녀린 모습을, 뒤 두 구에서는 무녀를 애처롭게 보는 시견오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들은 여성의 관능적이고 색정적 아름다움을 주로 묘사한 齊梁시기 宮體詩의 맥을 이은 것으로, '艷麗'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시견오의 기녀 소재 시는 '艷麗'함을 바탕으로 기녀의 색정적

60) 『전당시』, 제15책, 5600쪽.

아름다움을 강조한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시견오가 기녀의 색정적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쓴 시들은 ‘奇麗’하고 ‘艷麗’한 점에서 중만당 시기에 이런 경향의 시를 썼던 李賀(대략 791~817년), 溫庭筠(대략 812~866년), 李商隱(대략 813~858년) 등의 시인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4. 결론

중당의 시견오는 과거급제 후 귀향하여 도교 도사가 된 독특한 경력을 가진 시인이다. 그의 시는 현재 『전당시』 권494에 200여 수가 실려 전해온다. 본 논문은 시견오의 시 중 기녀를 소재로 한 시 12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특징을 ‘당대 과거급제 후 풍류 표현’ ‘기녀와의 사랑을 仙道에 기탁’ ‘기녀의 색정적 아름다움 강조’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시들은 대체로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난 후부터 귀향하여 도교 도사가 되기 전의 기간에 썼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대 과거급제 후 풍류 표현’ 부분은 시견오가 진사 급제 후 기루를 드나들며 기녀와 즐겼던 풍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당나라 때 과거 급제한 진사들이 풍류로써 기녀들과 어울렸던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기녀와의 사랑을 仙道에 기탁’ 부분은 기녀와의 사랑을 신선과의 연애에 기탁하여 표현함으로써 몽환적인 느낌을 줌과 동시에 현실에서의 제한된 연애에 대한 대리 만족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기녀의 색정적 아름다움 강조’ 부분은 기녀의 관능적이고 색정적인 외모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녀의 색정적인 외모를 묘사한 이 시들은 ‘奇麗’하고 ‘艷麗’한 점에서 중만당 시기에 이런 경향의 시를 썼던 李賀, 溫庭筠, 李商隱 등의 시인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기녀를 소재로 한 시견오의 시들은 또 기세가 크고 개방적인 성당시로부터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변화해 간 중당시의 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參考文獻〉

- 彭定求 等 編,『全唐詩』,北京,中華書局,2008.
- 陳才智 王益庸 編,『施肩吾集』,北京,中國文聯出版社,2007.
- 郭紹虞 編選,富壽蓀 校點,『清詩話續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9.
- 元稹 撰,冀勤 點校,『元稹集』,中華書局,1982.
- 陳寅恪,『元白詩箋證稿』,『隋唐制度淵源略論稿(外二種)』,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2002.
- 陳伯海,『唐詩彙評(中冊)』,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5.
- 許學夷,『詩源辯體』,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8.
- 蔣寅,『大曆詩人研究』,北京,中華書局,1995.
- 〔日〕齋藤茂 著,申荷麗 譯,『妓女與文人』,北京,商務印書館,2011.
- 손계·최령흠 지음, 최진아 옮김,『북리지·교방기』,서울,소명출판,2013.
- 王定保 著,김장환 역,『唐摭言』,서울,학고방,2013.
- 이택후 著,윤수영 역,『미의 역정』,서울,동문선,1997.
- 唐佳,「論中唐艷詩的文化心態」,華僑大學 碩士學位論文,2008.
- 穆瑞娟,「施肩吾詩歌研究」,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2014.
- 詹飄飄,「唐代詩人施肩吾的生平與詩歌研究」,寧波大學 碩士學位論文,2012.
- 熊俊,「對唐詩『島夷行』的研究」,『江西財經大學學報』,第11期,2000.
- 劉艷萍,「從元稹、白居易艷詩看中唐詩歌的寫實傾向」,『長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1卷 第2期,2009.
- 劉艷萍,「中晚唐艷詩研究述評」,『湖北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1卷 第2期,2009.
- 劉艷萍,「中晚唐冶遊狎妓之風與艷詩創作」,『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期,2009.
- 李乃龍,「道士與唐詩」,『江蘇社會科學』,第4期,2000.
- 朱睦卿,「睦州詩派」,『文教資料』,第4期,2000.
- 陳才智,「爲什麼施肩吾能够及白派之門」,『河南教育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期,2005.
- 賀威麗,「論施肩吾的艷詩及其詩史意義」,『岱宗學刊』,第13卷 第3期,2009.
- 黃景韓,「唐人戀情詩試論」,『溫州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3卷 第1期,2002.
- 李知芸,「李商隱愛情詩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5.
- 姜昌求,「唐代 閨怨詩의 發展과 內容」,『중국인문과학』,제23집,2001.

〈中文提要〉

中唐诗人施肩吾进士及第以后不当官，回乡成了道教道士，这是中国古代诗人当中罕见的。『全唐诗』存其诗200多首。本论文以施肩吾写的妓女题材的诗歌12首为研究对象，把其特点分为‘表现进士及第后的风流’‘把与妓女的爱情寄托于仙道’‘强调妓女的艳丽姿容’这三个部分进行了分析。这些诗歌可以说是施肩吾从进士及第到回乡之间写的。‘表现进士及第后的风流’这一部分诗歌体现出施肩吾进士及第后狎妓的风流，通过这些诗歌能了解到唐代进士及第的才子狎妓的情况。‘把与妓女的爱情寄托于仙道’这一部分诗歌以妓女喻仙，带有梦幻的气氛，同时实现了现实当中不能实现的自由恋爱。‘强调妓女的艳丽姿容’这一部分诗歌细腻描写妓女的艳丽姿容，带有‘奇丽’和‘艳丽’的特点。施肩吾先于李贺，温庭筠，李商隐等诗人写了这些描写女性的艳丽姿容的诗歌，可以说是具有其意义。本论文探讨的施肩吾的妓女题材的诗歌也体现出中唐诗歌关注感知生活小细节的内向性这一特点。

關鍵詞: 施肩吾, 中唐, 妓女, 艷詩, 艷麗

이 논문은 2015년 7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